

# 제주4.3 사건의 Dark Tourism 가능성에 관한 개념적 연구

## Jeju 4.3 Dark tourism potential of the incident on the conceptual study

김 석 윤\*                      김 태 일\*\*  
Kim, Seok-Yun                Kim, Tae-Il

### Abstract

Jeju 4.3 incident that occurred in Jeju many lives were sacrificed in the case of the most is the case. Incident tragedy that took place in Jeju, Jeju society 4.3 The Dark Tourism Tourists are looking for a place. Commercialization of tourism for the tragic incident that still are at the intersection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Dark Tourism and the various events related to commemorate the space, as a project to commemorate the tragic history of its own reproduction and to prepare a new life at the same time should be understood as intangible assets. In this study, 4.3 Dark Tourism, Jeju tourists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patterns. Dark Tourism in Jeju direction of the applicable plan will be defined and activated.

키워드 : 제주4.3사건, 다크투어리즘, 역사적사건, 관광자원

Keywords : Jeju4.3incident, Dark Tourism, Historical events, Tourism Resources

### 1. 서      론

#### 1.1 연구의 목적

과거는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한다. 현재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과거가 된다. 그러나 모든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억되거나 현재화된 모습의 과거는 변화했거나 새롭게 재구성된다.

제주4·3사건은 제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하지만 4·3사건처럼 제주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태도는 한반도에서 발생한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무시하려는 경향도 존재한다. 현대사의 맥락과 연계되었을 때 나타나는 편향적 사고를 경계하려는 보호주의적 사고체계가 작동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관광은 단순히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단계에서 체험과 모험의 과정을 지나 대안관광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사회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사건인 제주4·3 또한 Dark Tourism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2008년 개관 이후 제주4·3평화공원 누적관광객이 50만

명을 넘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Dark Tourism이란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것’으로 불리고 있다.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관광 상품화는 지금도 여전히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Ground Zero 방문자들은 정부차원의 관광 상품화 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 간 360만명에 이곳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이 팔려나가고 있으며, 주변의 민간인을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반면에 희생자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곳에서 사건을 찍으며 좋아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제주4·3사건의 경우에도 2010년에만 20만명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도내에 산재해 있는 4·3유적지를 찾는 이용객을 포함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4·3사건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고 있다. 관광현상으로서 제주4·3사건을 소재로 하는 Dark Tourism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Dark Tourism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공간, 기념사업은 그 자체로서 비극적 역사의 재현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론적 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현상으로서 Dark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Tourism이 존재한다면 서구와는 문화적 이질성이 큰 아시아, 특히 제주지역에서의 Dark Tourism 가능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광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의 범주에서 제주4·3 Dark Tourism 관광객 특성과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Dark Tourism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일제강점기와 그 후 4·3사건 등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아직도 문제해결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4·3사건 관련 기념시설과 유적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사회학과 역사학 등의 문헌사료를 바탕으로 개념정리를 시도하였다.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4·3평화공원과 북촌리 너븐숭이기념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관광객 의식조사 설문지는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적인 자료획득을 위하여 시설운영 관련자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유효 샘플의 수가 적고,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은신처, 희생터, 주둔지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과 계절별로 이용객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연간 이용객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을 활용한 Dark Tourism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초조사, 개념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는 유의미성이 높다. 관광객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유적지 활용, 기념공간 구성, 콘텐츠 등 프로그램 다양화, 마케팅의 방향, 운영주체 설정 등 좀 더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 2. Dark Tourism의 이론적 고찰

### 2-1. Dark Tourism의 개념

관광은 행태에 따라서 관광이라는 용어 앞에 문화, 생태, 녹색, 체험, 해양 등 형용사가 첨가되면서 관광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Dark Tourism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Dark(어둠)라는 형용사가 사용되면서 밝고 활기찬 관광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의미의 관광현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Dark Tourism은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비극적이거나 잔학무도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또는 그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것'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블

랙투어리즘(Black Tourism) 이나 그리프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한다. Dark Tourism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던 홀로코스트(Holocaust)<sup>1)</sup>와 제노사이드(Genocide)<sup>2)</sup> 지역과 장소를 여행한다고 볼 수 있다.

Dark Tourism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의 종교 순례에 그 맥이 닿아 있다. 순례는 개인이나 집단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정 죽음들에 종교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주어질 때 순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순례는 사건이 발생된 장소나 희생자가 안장된 장소가 그 대상이 된다. 즉 죽음에 대한 의미화가 이루어지면서 장소의 의미화로 개념이 확장되고, 그곳을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작용하면서 순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장소는 일상의 공간에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치환되면서 순례의 지속성과 장소의 영원성을 지니게 된다.

역사적으로 Dark Tourism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6년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라는 잡지의 특별호에서였다. 그 후 2000년에 영국 글래스고 칼레도니언 대학의 교수 두 명이 공저로 펴낸 자신들의 책 제목을 Dark Tourism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널리 알려지게 된다(한국관광공사, 2010).

레논과 폴리는 근래에 일어난 사건으로 방문객들이 현실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그들은 '불안과 의심의 상품화'라고 하였다. 단과 시턴(Dann and Seaton)은 thanatourism<sup>3)</sup>(사거관광)이 고대 그리이스의 thanatos(의인화된 죽음)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인물들의 역사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장소 등을 관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thanatourism(사거관광)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언급한다. 또한 slavery tourism(노예관광)은 과거 노예 식민지의 역사를 지닌 유적지를 돌아보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송재호·김향자, 2009).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Dark Tourism은 단일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넓은 범주에서 Dark Tourism은 thanatourism(사거관광), Black Tourism(블랙 투어리즘), Grief Tourism(그리프 투어리즘), slavery tourism(노예관광)을 포함한다.

- 
- 1) Holocaust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전체의, 모두 다'를 의미하는 hólos와 '태우다'를 의미하는 káutein이 결합된 복합어이다. 다분히 종교적 제의의 성격을 띠는 이 용어는 '신에게 바쳐진 성스러운 희생양' 또는 '번제(燔祭)를 통해 완전히 태워진 희생물'을 의미한다.
  - 2) Genocide는 특정집단을 절멸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학살하는 행위로, 보통 종교나 인종·이념 등의 대립으로 발생한다. 독일 나치정권이 유대인과 집시를 대량학살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범죄로 규정되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코소보의 인종청소 등도 이에 속한다.
  - 3) 사거관광의 유형으로는 1)사형집행장, 로마 격투장, 비행기 추락장소배가 침몰하거나 테러의 장소, 2)아우슈비츠 등 개인이나 대중이 학살된 장소, 3)죽은 사람이 살았을 당시 수용되었던 곳이나 기념관을 참배하는 행위 4)특정 주검과 관련한 물질적 증거나 상징물이 있는 곳, 5)특정 주검 재현행사 등이 있다.

Dark Tourism은 넓게는 일종의 문화유산산업 또는 역사유산산업에 속한다. 즉 특정집단이 겪은 경험을 무화시키지 않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며 일정한 장소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욕망이 경제적 맥락과 교육적 맥락으로 확장되는 것이다(정근식, 2006).

Dark Tourism에 대응하는 한국어로는 '어둠의 관광'으로 지칭하고 있다 (김사현, 2006). 이외에 유사한 개념으로 안보관광, 평화관광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한 Dark Tourism에 대한 알맞은 용어의 사용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역사교훈여행'이라는 다듬어진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을 대신할 우리말을 누리꾼이 제안한 427건 가운데, 원래 의미를 잘 살리면서 우리말의 단어 구성에 맞는 듯한 '뒤안길여행', '비극역사여행', '역사교훈여행', '역사반성여행', '참사현장여행' 등 다섯을 후보로 하여 투표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역사교훈여행'이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의 다듬은 말로 결정되었습니다' (<http://www.korean.go.kr/>).

한국어로 사용되는 '어둠의 관광'이나 '역사교훈여행'은 어둠이 주는 부정성과 역사교훈이 주는 교육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관광은 가벼움, Dark Tourism은 무겁다. 관광은 밝음, Dark Tourism은 어둠으로 기억된다. 이들 용어는 집단학살 등 내용적인 측면을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광의 내용적 측면을 전제로 지역의 역사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2. Dark Tourism의 장소 및 장소성

### 2-2-1. 장소 및 장소성의 개념

장소에 대한 정의는 오랜 시간동안 다각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채워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그곳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공간이다. 사람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무의미한 공간에서 고유의 기능과 성격을 지니는 장소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관광명소로서의 장소는 관광객의 가치가 개입된 공간이며, 관광객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 될 수 있다. 관광명소로서의 장소는 관광객의 인식체계를 통해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인지된 공간을 의미한다. 장소는 관광객의 인식체계에서 자리 잡기 이전에 지역주민 생활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장소로 지역주민들의 인식 체계에 특정한 가치를 지니는 공간이다(이진희, 2006c).

장소성은 다른 공간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며 그곳만의 개성적인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의 진정성이 폐기되거나 아니면 새로워진 시대에 맞춰 다양한 강도로 인식 된다(황용성, 2009). 장소성은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장소성은 집단적

으로 인식된다. 둘째, 장소성은 집단적으로 인식된 그 장소가 지니는 정체성이다. 셋째, 장소성은 인간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안예현, 2007).

장소가 위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장소성은 장소가 지니는 본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소성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어떤 장소에 대해 느끼는 애착이며, 어떤 장소가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사실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중을 두는 장소는 하나의 매체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의도된 프로그램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극장이나 경기장은 역사적 사건의 장소, 시간과 사건이 축적된 결과물로 나타나는 장소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 2-2-2. Dark Tourism의 장소 및 장소성

대중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과 내용은 다양하다. 일상적인 삶이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저항, 또는 그들이 꿈꾸던 세상과 미래의 모습으로 기억 될 수도 있다. 과거의 기억을 현재 시점에서 재생한다는 것은 장소의 재현과 아울러 행위의 재현 모두를 포함한다. 이 둘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현은 사건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모두를 기억하여 재생한다.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소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기념비이다. 대부분의 기념비는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다. 즉 기념비는 사건을 상징하며 또한 그 장소를 상징하게 된다. 이와는 별개로 사건의 결과물로 기념비가 되는 장소가 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장소 자체가 기념비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다.

반면에 기념관 또는 박물관은 의도성이 확실하게 드러남으로서 장소성이 분명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기념관이나 박물관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은 추상적이며 모호한 기억을 전형화 된 형식으로 재현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기념관이나 박물관 자체가 상징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이 사전에 충분히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흔적, 기억을 조합하여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은유적이거나 다양한 상징, 이미지의 종합 등이 사용되면서 감성의 자극을 통한 역사적 실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검이 묻힌 장소와 이를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재현하는 장소, 추념하는 장소는 일치하지만, 동일한 맥락의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면 이를 추도하는 행사 장소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순례는 일차적 장소와 이차적 장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이런 상기의 행위가 매스미디어에 의해 전달되는 경우 장소의 재구성이 발생하기 쉽다(정근식, 2006).

Dark Tourism의 장소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현재적 행위가 발생하는 지역 모두를 포함한다. 장소성은

추모, 재현, 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 3. 제주지역 Dark Tourism의 실태

#### 3-1. 제주지역 Dark Tourism 현황

##### 3-1-1. 제주지역 Dark Tourism 장소 현황

일반적으로 Dark Tourism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가권력을 포함한 집단권력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Dark Tourism의 대상을 살펴보면 봉건사회 해체에 발생한 신축제주항쟁과 일제강점기, 1948년 발생한 4·3사건, 1950년의 6.25전쟁 관련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표3-1 : 제주지역 Dark Tourism 장소 현황

구분	내용	
시설 및 기념비	신축 제주항쟁	삼의사비
	항일운동	해녀항일기념공원, 가마오름평화박물관, 무오법정사, 조천항일기념관
	4·3사건	4.3평화공원, 북촌리너른송이기념관, 4·3표적, 4·3위령비(만병의, 현의합장묘, 백조일손지지, 영모원등)
장소	6.25전쟁	태권도탑
	신축 제주항쟁	황사평순교자 묘역, 판덕정
	항일운동	일본군 전지동굴, 알뜨르 비행장
4·3사건	희생터, 은신처, 군경 주둔지, 4·3성, 잃어버린 마을, 민간인 수용소	
	6.25전쟁	모슬포 제1훈련소, 강병대교회

자료: 『제주4·3유적 I·II』, 『일제동굴진지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위의 표3-1은 제주지역 Dark Tourism의 장소가 주로 제주4·3 사건과 관련된 곳이 대부분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시설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시설이나 장소 또한 제주4·3 사건 시기에는 주민들의 은신처나 희생터로 이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까지 포함한다면 제주지역 Dark Tourism의 장소는 4·3사건과 관련된 시설 및 장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4·3 사건과 항일운동 관련 시설 및 장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제주4.3 사건의 경우 희생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에 걸쳐서 발생했던 사건이란 점이 작용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 관련 시설은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한 옥쇄작전의 일환으로 도내 곳곳을 요새화했기에 지금도 많은 시설이 남아 있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이 두 개의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들이어서 기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또렷하고 물리적으로 훼손될 시간이 부족했던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 3-2-2. 제주4.3 Dark Tourism 유적지 현황

4·3사건 당시 희생된 죽음은 공동체성에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집단적 죽음은 다수가 동시에 희생된 점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의 희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키는 것은 공동체의 복원과 맞물리게 된다. Dark Tourism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억이 전형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재생산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역사복원은 물리적 복원에 앞서 정신적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근식, 2006).

일제 식민지 시대의 건조물 및 4·3사건과 관련된 유적들이 제주지역에 전도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들 건조물에 대한 보존과 자원 활용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에 따르면 4·3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된 행정 구역별 유적분포는 각각 표3-2 및 표3-3과 같다.<sup>4)</sup>

표3-2 : 조사 마을수

지역 구분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서귀포시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중문면	안덕면	대정면	총계
전체 마을 수	24	10	12	19	15	13	12	9	6	12	8	11	11	162
조사대상 마을 수	24	9	11	16	10	6	6	8	5	6	7	6	6	120

자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표3-3 : 유적의 분포현황

지역 구분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	애월면	한림면	한경면	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서귀포시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총계
잃어버린 마을	33	10	8	3	6	2	1	8	5	10	1	1	1	108
4·3성	8	2	1	20	7	6	6	2	6	2	4	1	1	64
은신처	9	11	3	3	2	1	2	1	3	3	3	5	3	35
희생터(학살터)	40	12	16	13	12	8	10	7	13	6	9	5	3	154
민간인 수용소	2	3	2	2	1	2	2	2	5	1	1	1	1	18
군경주둔지	17	6	5	13	4	5	4	3	5	8	7	3	3	83
희생자 집단묘지	1	1	1	1	1	1	1	1	3	3	3	3	3	6
비석	17	1	1	5	1	1	1	1	4	4	2	2	2	41
역사현장	9	7	6	8	3	2	5	2	4	4	3	2	2	61
기타	3	2	1	1	1	1	1	3	2	1	1	1	1	17
총계	149	58	42	90	37	25	31	30	42	26	39	16	12	597

자료: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표 3-3에서 언급하고 있는 4·3사건과 관련된 장소적 분류는 희생터, 은신처, 군경 주둔지, 4·3성, 잃어버린 마을, 민간인 수용소, 희생자 집단묘지, 비석, 역사현장, 기타 등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①희생터는 4·3 기간 주

4) 2003년 발간된 『제주4·3유적 I·II』에서는 유적지가 754곳으로 조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된 자료인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97곳과 차이를 보여주는 원인은 대상지 선정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에서는 잃어버린 마을의 경우 10호 이상, 희생터는 5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추가 조사된 유적과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제주4·3유적 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의 유적 현황을 인용하였다.

민들이 토벌대나 무장대에 의해 ‘집단학살’된 장소를 말한다. ②은신처는 동굴이나 엄폐물이 있는 곳에서 주민들이 숨어 지냈던 곳을 말한다. ③군경 주둔지는 토벌대나 무장대가 주둔했던 곳이다. ④4·3성은 각 마을에서 무장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마을을 둘러쌓은 성을 말한다. ⑤잃어버린 마을은 1948년 11월 이후 중산간 마을이 토벌대에 의해 전소된 후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마을이다. ⑥민간인 수용소는 4·3 기간 주민들이 토벌대에 체포돼 집단 수용됐던 곳을 말한다. ⑦희생자 집단묘지는 토벌대에 희생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까지 도내에는 백조일손지,만병디공동장지,너분송이,현의합장묘 등 네 군데로 파악되고 있다. ⑧비석은 4·3 기간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충혼비, 송덕비 등을 총칭한다. ⑨역사현장은 4·3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제주4·3유적 I, 2003)

제주도내 4·3유적지를 분류하면 조사된 곳은 총 597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곳이나 이후에 추가 조사된 지역을 포함하면 더욱 많은 자원이 제주도내에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희생터는 154곳, 은신처는 35곳, 군경 주둔지는 83곳, 4·3성은 64곳, 잃어버린 마을은 108곳, 민간인 수용소는 18곳, 희생자 집단묘지는 6곳, 비석은 41곳, 역사현장은 61곳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제주 전역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Arcview GIS를 이용하여 표3-3에서 제시되었던 유적의 전반적인 분포 현황을 살펴봐왔다(표3-4). 그림3-1이 제시하고 있듯이 산남과 산북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4·3사건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활용 보다는 관련성을 찾아 군집화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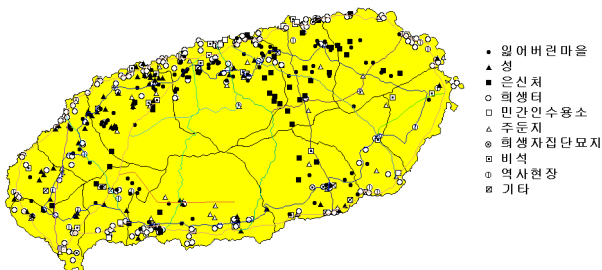


그림3-1: 4·3사건 유적의 분포현황

당시 마을 인구수와 소개 대상이었던 중산간 마을의 분포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들어 은신처, 희생터, 주둔지를 살펴보면(그림3-1) 은신처의 분포도는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의 서쪽지

역과 달리 동쪽지역은 지형적으로 오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동굴과 같은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은신이 쉬웠으리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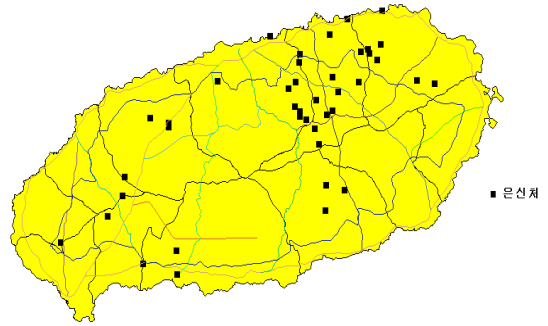


그림3-2:은신처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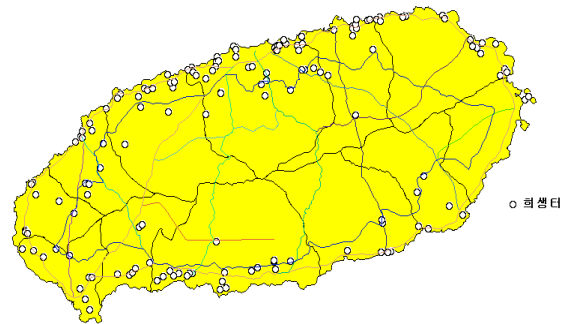


그림3-3:희생터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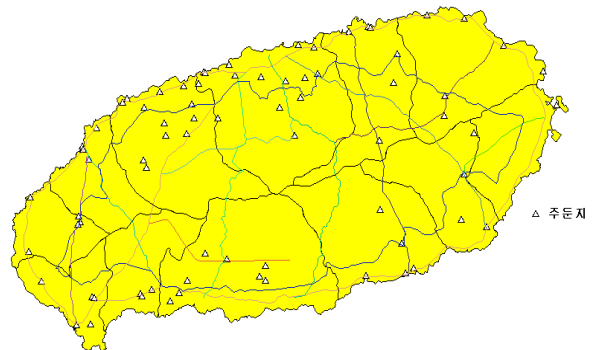


그림3-4:주둔지의 분포

반면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학살된 장소인 희생터는 산남과 산북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서쪽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 흥미있는 것은 희생터의 경우 군인, 경찰 혹은 서북청년단, 무장대가 주둔하였던 지역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3-3와 3-4 참조). 이는 토벌대와 무장대의 주둔지역을 중심으로 학살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주둔지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의 희생이 많았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에 와서 역사적 의미와 자원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적지를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보존상태가 우수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아울러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즉 Dark Tourism의 목적과 교육적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원의 분포현황과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활용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4. 제주4.3 Dark Tourism 이용객 의식조사

본 조사는 제주의 대표적인 4·3기념시설인 제주4·3평화공원과 북촌리 너븐숭이기념관 이용객을 대상으로 Dark Tourism 일반에 대한 이해와 제주 4·3사건에 대한 의식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4·3사건과 관련된 Dark Tourism의 방향성 제시, 대안관광으로서 제주4·3이 갖는 Dark Tourism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했다. 특히 본 설문 조사는 관광객 의식조사를 목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도내 관광객은 제외하였다. 표본은 랜덤 추출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가운데 결측값을 제외하고 제주4·3평화공원 이용객 102명, 너븐숭이기념관 이용객 50명, 총 152명의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설문에 응답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0명(55.2%), 남성이 65명(44.8%)이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학력은 73명(52.1%)이 대졸 이상에 응답하고 있어 방문객의 학력이 대체로 높은 편이다. 연령 분포는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가운데 20대가 59명(4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200만원 미만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원

표4-1 :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5	44.8	100
	여성	80	55.2	
학력	고졸	67	47.9	100
	대졸	55	39.3	
	대학원	18	12.9	
연령	20대미만	9	6.2	100
	20대	59	40.4	
	30대	27	18.5	
	40대	24	16.4	
	50대이상	27	18.5	
직업	공무원	15	10.3	100
	자영업/서비스	14	9.7	
	사무직/관리직	14	9.7	
	1차산업	5	3.4	
	전문/기술직	14	9.7	
	주부	5	3.4	
	학생	62	42.8	
	기타	16	11.0	

인이 되고 있다. 직업분포도는 학생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 방문객이 많은 이유는 졸업 여행 등 시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Dark Tourism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고 있다. 응답자 가운데 잘 모름과 전혀 모름에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74.8%인 98명이 응답하고 있다. Dark Tourism에 대한 방문 전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연령별 이해도의 차이 또한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연령과 이해도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4-2 : 다크투어에 대한 이해도

구분	다크투어 이해				전체 (빈도) (가로%) (세로%)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20미만	1	0	5	3	9
	11.1%	.0%	55.6%	33.3%	
20대	2	10	27	19	58
	3.4%	17.2%	46.6%	32.8%	
30대	2	6	10	8	26
	7.7%	23.1%	38.5%	30.8%	
40대	2	4	11	4	21
	9.5%	19.0%	52.4%	19.0%	
50이상	4	2	8	3	17
	23.5%	11.8%	47.1%	17.6%	
	11	22	61	37	131
	8.4%	16.8%	46.6%	28.2%	
	100.0%	100.0%	100.0%	100.0%	100.0%

p<0.49 x2=11.44 df=12

Dark Tourism에 대한 이해도와 제주도 여행횟수와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질의에서 방문횟수와 이해도는 연관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방문횟수와 이해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표4-3 : 이해도와 여행횟수

구분	다크투어 이해				전체 (빈도) (가로%) (세로%)
	잘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잘 모름	전혀 모름	
처음	1	3	12	9	25
	4.0%	12.0%	48.0%	36.0%	
두번	0	6	16	8	30
	.0%	20.0%	53.3%	26.7%	
세번	2	6	10	6	24
	8.3%	25.0%	41.7%	25.0%	
네번이상	8	7	24	14	53
	15.1%	13.2%	45.3%	26.4%	
	11	22	62	37	132
	8.3%	16.7%	47.0%	28.0%	
	100.0%	100.0%	100.0%	100.0%	100.0%

p<0.43 x2=9.032 df=9

여행횟수가 많아도 사전에 방문 목적지에 포함되거나 또는 여행 중 관련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다면 방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정보 접근성·

정보 노출기회 확대가 중요함을 엿볼 수 있다.

방문지의 Dark Tourism 관련 이해가 낮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질의에서는 '홍보 부족'항목에 대한 응답자가 전체91명 가운데 67명이 응답하여 73.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방문 횟수가 많으면 방문지의 Dark Tourism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여행사의 관련 상품 개발의 유무나 역사적 실체에 대한 견해차이 보다는 역사적 사건·사실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주4·3사건 또한 Dark Tourism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국내외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4-4 : 이해도가 낮은 원인

구분	빈도수	퍼센트
여행사의 무관심	2	2.2
홍보의 부족	67	73.6
관람객 관심 부족	17	18.7
역사사실에 대한 견해차이	3	3.3
기타	2	2.2
합계	91	100.0

다음으로 Dark Tourism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우선 순위별로 하나씩 고르도록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1순위의 분절결과는 이해도가 낮은 원인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강화 처럼 사건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정부의 지원강화 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Dark Tourism의 발생 배경이 대부분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함으로 정부의 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2순위에 대한 응답율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Dark Tourism에 구성 요소들이 고르게 갖춰질 때 활성화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상태는 이들 제반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분석 할 수 있다.

표4-5 :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수	퍼센트	빈도수	퍼센트
투어홍보강화	55	39.9	20	17.2
역사교육강화	44	31.9	28	24.1
시설간 협력강화	6	4.3	8	6.9
정부지원 강화	26	18.8	26	22.4
전문여행사 육성	3	2.2	15	12.9
전문해설사 양성	4	2.9	19	16.4
합계	138	100.0	116	100.0

이곳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서 '제주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방문객은 응답자의 37.7%를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부분은 '단체관광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수동적인 방문객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시사점

은 '홍보물을 보고', '단체관광객', '우연히 지나가다' 처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방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적을 갖는 계층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4-6 : 방문동기

구분	방문동기					전체 (빈도) (가르%) (세르%)
	우연히 지나가다	홍보물을 보고	제주역사를 이해하기위해	단체관광프로그램으로	기타	
20미만	0 .0%	0 .0%	2 25.0%	5 62.5%	1 12.5%	8 100.0%
20대	15 25.9%	2 3.4%	21 36.2%	14 24.1%	6 10.3%	58 100.0%
30대	8 32.0%	1 4.0%	10 40.0%	4 16.0%	2 8.0%	25 100.0%
40대	1 4.5%	1 4.5%	9 40.9%	6 27.3%	5 22.7%	22 100.0%
50이상	4 16.0%	5 20.0%	10 40.0%	4 16.0%	2 8.0%	25 100.0%
전체	28 20.3%	9 6.5%	52 37.7%	33 23.9%	16 11.6%	138 100.0%

p<0.058 x<sup>2</sup>=25.711 df=16

제주지역에서 Dark Tourism 장소성을 갖는 곳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장소를 알아보기 위한 질의에서 4·3관련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원인은 설문 대상 지역이 4·3관련 시설에서 조사했다는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관광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일기변화에 따르는 실내 관광지 선택 패턴이 Dark Tourism 방문지 선택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4-7 : 선호하는 장소

구분	인상적인 장소				전체
	근대이전	일제강점기	4·3관련	한국전쟁관련	
고졸	1 1.7%	11 18.6%	44 74.6%	3 5.1%	59 100.0%
대졸	0 .0%	6 13.6%	38 86.4%	0 .0%	44 100.0%
대학원이상	2 11.8%	1 5.9%	14 82.4%	0 .0%	17 100.0%
전체	3 2.5%	18 15.0%	96 80.0%	3 2.5%	120 100.0%

p<0.058 x<sup>2</sup>=12.16 df=6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율을 보이는 항목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전쟁과 근대 이전에 대한 빈도수는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소 특이한 점은 대학원 이상의 학력자의 경우 현대사 관련 보다는 근대 이전에 대한 응답자

가 매우 높은 분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방문지의 Dark Tourism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에 대한 방문객 의사를 묻는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국값을 제외하고 선호도에 대한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설과 내용의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좋음과 나쁨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분포는 내용측면의 항목이다. 그 가운데서도 '잘 몰랐던 제주역사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일 항목에서 '다양한 콘텐츠·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의 항목들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향후 관련 전문 여행업체나, 전문가 양성 및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4-8 : 방문지가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

구분	내용	좋음	나쁨	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시설 측면	내용에 알맞는 건축설계가 좋았다	93	8	1.29	0.45
	원형보존이 잘되어있다	91	10		
	이용자가 편리하게 내부구성이 되어있다	94	10		
	조형물 등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좋았다	93	13		
내용 측면	주제가 잘 나타나는 전시구성이 돋보였다	99	8	1.32	0.46
	다양한 콘텐츠·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았다	76	27		
	잘 몰랐던 제주역사에 대한 이해가 좋았다	103	5		
서비스 측면	실증적인 자료가 많아서 좋았다	86	13	2.0	0.42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이 좋았다	69	36		
	전문여행사가 있어서 편하다	25	68		
	홍보가 잘 되어 찾기가 쉬웠다	36	64		
	체험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59	38		

앞으로 개발 가능한 제주지역의 Dark Tourism 요소 중 재 방문시 관심 있는 항목은 4·3관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하는 장소에서 나타났던 비율(4·3관련이 80%) 보다는 낮은 비율(46.8%)을 보여주고 있다. 즉 4·3사건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재방문을 할 정도의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포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 영역이 고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Dark Tourism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핵심 주제를 확장할 필요성은 있지만, 특정분야의 주제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품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홍보 마케팅의 측면에서 앞으로 Dark Tourism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때에 가장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 인터넷 관련 매체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여행안내 책자와 행정기관의 안내 자료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매체의 선택에 있어서는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하겠지만, 여행안내 책자와 행정 안내 자료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행정 안내 자료나 여

행관련 홈페이지의 여행안내 코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Dark Tourism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는 패키지투어 방식 보다는 개별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방문동기에서 23.9%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 프로그램에 있어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문객은 개별관광의 형태로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안관광에서 보여주는 개별여행객 중심의 흐름은 Dark Tourism 에서도 같은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9 : 믿을만한 정보원/재방문대상지/여행형태

분류	내용	빈도	퍼센트
정 보 원	여행사	6	4.7
	광고(신문,잡지,TV)	14	11.0
	가족,친구 및 친지의 구전	16	12.6
	인터넷 검색 사이트	37	29.1
	여행 안내책자	24	18.9
	소속회사 및 단체	7	5.5
	행정기관의 안내자료	19	15.0
	기타	4	3.1
	합계	127	100.0
재 방 문 대 상 지	내용	빈도	퍼센트
	근대이전(민란의 장소, 역사인물을 소재로 한 콘텐츠)	20	15.0
	일제강점기(동굴진지, 역사적 장소, 기념관)	45	33.8
	43관련(잃어버린마을, 희생터, 은신처, 기념관)	62	46.6
	기타	5	3.8
	합 계	133	57.4
여 행 형 태	내용	빈도	퍼센트
	개별여행	95	69.9
	패키지투어	34	25.0
	기타	7	5.1
	합 계	136	100.0

## 5. 결 론

Dark Tourism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기억을 오늘에 되살려, 고통을 기억하려는 것은 아니다. 기억을 재생시키고 희생자를 추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폭력을 지양하고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자원이 관광자원으로 전환되고 관광상품으로 시장에서 이용자의 만족체험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2개의 경로가 있다. 소재에 변형을 가하여 새롭게 상품으로 개발하는 즉, 추출된 테마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과 소재의 변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원형을 해석과 설명을 곁들이는 수준에서 상품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제주4.3사건의 경우에는 소재의 변형 없이 해석과 설명을 곁들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관광은 수용자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시간투자와 정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 지역에서 아무리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도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광객들은 실제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고유성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며 행복한 체험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관광을 선호하는 대상은 해당 사건이나 지역의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관광객의 인식수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눈높이에 알맞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4.3사건의 경우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이해의 확대라는 긍정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정형화된 단기체험을 기대하는 관광객의 속성에 맞추다보니 올바른 이해보다는 감각적 수준의 경험만족에 머물러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부정성 또한 지니고 있다.

설문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방문객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높은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고령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2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수입 부분에서 200만원 미만의 분포도가 높게 형성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향후 제주4·3 Dark Tourism 운영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추모와 더불어 관광객의 눈높이에 알맞은 체험과 교육 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건의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소통과 인식의 확장이라는 Dark Tourism의 고유 목적은 제주4·3 Dark Tourism의 결과물로서 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홍보의 문제는 여행사의 관련 상품 개발의 유무나 역사적 실체에 대한 견해차이 보다는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 Dark Tourism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알려주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에서 제주4·3평화공원과 너븐숭이기념관은 전시형 구성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 사실의 재현과 함께 일부 소재의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간접적이며 은유적인 재현과 체험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서비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점은 단순히 불편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음으로서 발생하는 일종의 거리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렵고 딱딱한 체험 보다는 즐겁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지역의 Dark Tourism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3사건처럼 중요한 사건을 확장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특정 사건에 편중됨이 없이 다양한 사건이 상품으로 연계되었을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 동기는 희생자 추모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둘째, 관람객의 사건에 대한 이해정도는 매우 낮다. 셋째, 홍보가 부족하다. 넷째, 관련 프로그램 참가경험이 거의 없다. 다섯째, 서비스만족도가 매우 낮다. 여섯째, 방문객은 개별여행을

선호한다. 일곱째, 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다. 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4.3 Dark Tourism이 활성화되고 진상규명과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기 위한 과제와 방향성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개별 관광객, 전문가 중심의 관광객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코스 및 메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여행업체에서 관심을 갖더라도 가이드 및 코스 선택에 한계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표지 설치, 관광행태 다변화를 위한 Dark Tourism 관광 홍보물 제작, 가이드 북 제작 및 배포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코스 개발과 함께 관광업체 종사자 교육, 콜센터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품 마케팅의 측면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Dark Tourism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주변 관광지 연계방안 마련, 역사여행·교훈여행 확장방안 마련 및 연동 프로그램 개발(일제 전적지 방문, 생태여행 등 대안관광의 패키지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운영주체의 측면에서는 관광협회/관광가이드협회를 중심으로 실행 주체 형성 및 안내요원 교육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용객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했을 때 제주4·3진상규명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내외 공유의 기회가 더욱 확장될 수 있다.

Dark Tourism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공간, 기념사업은 그 자체로서 비극적 역사의 재현이며 동시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관광의 흐름에서 대량관광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패턴의 다양화 요구와 맞물려 대안관광으로서 생태관광과 역사관광 및 체험관광 유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제주4·3은 Dark Tourism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 제주4·3평화재단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평화공원, 너븐숭이기념관) 공간을 핵심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연구성과와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이 관광행위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4·3콘텐츠 개발을 통한 상품의 다양성 확보를 바탕으로 제주4·3사건과 제주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교차할 때 제주 4.3사건은 세계와 소통하고 평화운동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김태일(2007), 제주지역에서의 1940년대-1950년대의 역사

- 유적 및 건조물의 특징에 관한 기초연구-4·3사건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근대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2. 문성중(2005), 「관광과 평화 그리고 도시경제」, 평화도시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3. 송재호·김향자(2009), 「민중공원의 개념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21』.
  4. 안예현(2007), 「청계천 지역의 장소성 변화에 관한 연구 : 도심재개발이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장윤식(2007), 「제주지역 Dark Tourism 활성화 방안,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6.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6), 『제주시 4·3유적의 문화자원화를 통한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7. 이진희(2006c), 『장소마케팅』, 大旺社.
  8. 정근식(2006), 「4·3진상규명운동, 제도화와 문화자원화」, 제주민예총정책심포지엄 자료집.
  9. 제주도/제주4·3연구소(2005), 「제주4·3유적종합정비 및 유해발굴 기본계획」.
  10. 제주발전연구원(2001),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안』.
  11.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 I·II』.
  12. 한국관광공사관광트랜드연구회(2007), Nich Tourism(4) Dark Tourism, 1-2.
  13. 한문성(2003), 「대만의 살아있는 컴퓨터 2·28평화공원」,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4. 황용성(2009), 「사건과 이미지에 의한 전일적 공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원 박사학위논문.